

매력적인 울림, 오페라

—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한 오페라의 세계 —



“‘오페라’라는 말에는 이상하게도 매력적인 울림이 있다. 나는 결코 오페라 광이나 마니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페라라는 말은 묘하게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에 나오는 말이다.

하루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오페라^{OPERA}라는 말의 어원은 ‘작품’을 뜻하는 라틴어 OPUS의 복수형에서 나왔다. 처음부터 음악을 위한 극^희이라는 성격이 강했던 오페라는 초반 ‘드라마 인 무지카, DRAMA IN MUSICA’ 또는 ‘오페라 인 무지카, OPERA IN MUSICA’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훗날 짧게 OPERA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유래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오페라에서는 드라마가 음악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 할지라도 공감 가는 이야기가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오페라가 아니다.

초기 오페라는 귀족이나 제후들의 특별한 날을 위한 축하공연 형식이 많았으므로 음악 이외에도 반드시 구경거리가 동반되어야 했다. 듣는 귀도 만족스러워야 했지만 눈으로도 풍부한 볼거리가 있어야 했던 것이다. 때문에 음악 뿐 아니라 무대미술, 의상, 춤 등이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오페라가 오늘날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르네상스 이후 서양문화사에서 오페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페라는 단지 음악적 장르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미술, 문학, 무용 등 다른 예술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왔다. 또 작품에는 반드시 당시 사회상이 녹아들어있기 때문에 필자는 종종 ‘오페라는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예를 들어 부르주아 청년과 파리 화류계 여성 사이에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라 트라비아타’는 오페라의 원작소설의 작가 뒤마 피스의 자전적 이야기고 여기에 작곡가 베르디의 개인적인 경험도 더해졌다. 또 산업화가 진행되던 당시 파리의 향락적인 문화와 새롭게 등장한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도 함께 담겨있어 관객들은 베르디 당대의 사회상을 또렷이 엿볼 수 있다.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음악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중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이 작품에서 음악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고 베르디의 의도와도 어긋난다. 베르디는 작품을 통해 동시대 사람들의 위선과 속물근성을 비판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페라에는 음악만이 아닌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있어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대상이지만 오페라와 친숙하지 않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만만찮다. 유명 아리아나 서곡 정도는 알고 즐길 수 있다 해도 오페라 초심자가 극장에서 전막 오페라를 감상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다. 또 인간의 귀란 유난히 익숙함에 반응하기 마련이어서 잘 모르는 음악이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경우 지루함과 졸음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게 된다. 가뜰이나 살기 힘든 세상에 그런 고난을 참으며 오페라극장까지 다니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굳이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페라 공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세계 유수의 오페라 극장의 명작오페라 공연 실황이 블루레이나 DVD에 담겨 집에서 감상 할 수 있고 멀티플렉스 극장에서도 관람이 가능하다. 또는 유럽 극장에서 공연되는 오페라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즐길 수도 있다. 아니면 가장 고전적인 감상방법인 음악듣기도 있지만 오페라는 시각적인 요소도 중요한 예술이기 때문에 되도록 동영상과 함께 감상할 것을 권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는 친해지고는 싶지만 다가가기 까다로운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요즘처럼 편리한 세상에 이런저런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오페라와 사귀기 시작한다면 멀리게 될 신세계는 다른 어떤 것보다 황홀할 것이다.